

그리스도인 23. 그리스도인이 되면 ...

Christian 23. When you become a Christian ...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 첫째 예수님(Jesus)이다.

주님은 부활하신 뒤 베드로에게 물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6)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 아는 그리스도인들은(갈 2:20)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14:21)라고.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 둘째, 성도들(saints)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3:14)

그리스도인은 형제들을 사랑한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그가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를 드러낸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엡 1:15)에 대해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한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특히 교회로 함께 모이는 지체들에 대해 더욱 귀하게 생각한다.

- 셋째 잃어진 혼들(the lost)이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 혼들을 사랑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전 9:22)고 썼다.

또 로마서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롬 10:1)고 썼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잃어진 혼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복음 전도자들이 된다는 말이다.

- 넷째, **의(righteousness)**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 위로 높이셨나이다. (히 1:9)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반대로 그분이 싫어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멀리한다.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반대로 죄를 싫어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요일 1:8-10).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점이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해서 매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시 51편).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증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롬 8:14).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

- 다섯째 **하나님의 일(God's works)**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전 15:58)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있다. 그분의 일에 열심을 낸다. 교회 세우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 성도들이나 사역자를 격려하는 일 등,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리는 것이 있다.

구원의 확신(the insurance of salvation)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그 영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롬 8:16)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시는데, 성경기록들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성경기록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며 그것에 의지한 확신은 흔들릴 수 없다. 성령님은 성경기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 주신다.

요한은 자신이 요한일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고 했다. 그러므로 확신의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

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롬 5:5)음을 알게 된다.

사탄은 늘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안식에 대해 시기와 적대감을 갖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을 의심과 어둠 속에 가두려고 한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강건하고 당당하게 되기보다 흔들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하고 당당하기를 원하신다. 확신 속에 있기를 원한다. 또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것이다. 그 성경기록을 읽고 확신 속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기록이 주는 확신 가운데 산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